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 재선출

강경파 사퇴 결정 … 조만간 임원 선거 시사

정당성 불법 논란 … 노노갈등 재현 조짐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으로 법적 정당성을 잃은 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가 결국 사퇴한 뒤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에 앞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야 하지만 현재 대의원들마저 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대의원대회를 어떻게 개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속노조는 13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금호타이어 노조 임원선거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사 측이 노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임단협 보충 교섭이 중단되고 수십 건이 넘는 고소·고발과 집행부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 전임자들의 3개월째 임금 미지급 등 집행부와 조합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노조를 둘러싼 이같은 이중삼중의 법적 올가미를 소멸시키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빠른 시일 내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 대의원대회와 총회 소집의 모든 권한을 광주·전남지부장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조의 재선거 결정은 지난 7월 강경파 노조가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근무여건이 조정되지 않는 등 직원들이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법원의 잇따른 '무효' 판결로 강경파 노조가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면서 직무수행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강경파 노조원들이 양보 교섭 등을 이유로 전임 집행부를 탄핵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 2개의 노조가 사사건건 마찰을 빚다 최근 전임 집행부가 사퇴하면서 강경파가 노조를 장악했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전 집행부에 대한 탄핵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중도파로 알려진 '실천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강경파 집행부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강경파 노조가 추진한 제38기 대의원선거는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대의원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 대의원들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의원들의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의원대회 개최를 놓고 또 다시 노노갈등이 재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13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테스코 인터내셔널 소싱 본부 구매담당 임원들과 국내 중소기업 대표들이 수출상담을 하고 있다. 이날 테스코와 KOTRA, 홈플러스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3자간 MOU를 체결하고, 홈플러스와 KOTRA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상품을 전세계 테스코 그룹사 매장에서 판매키로 했다. /연합뉴스

20나노급 64Gb3bit 낸드플래시

삼성전자 이달부터 양산…시장 선점

삼성전자는 대용량 스토리지용 20나노급 64Gb(기가비트) 3bit(비트) 낸드플래시를 이달부터 양산한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30나노급 32Gb 3bit 낸드플래시를 양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용량이 두 배로 커진 20나노급 64Gb 3bit 낸드플래시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나노급 64Gb 3bit 낸드플래시는 30나노급 32Gb 3bit 제품보다 생산성이 60% 이상 높고 'Toggle DDR(Double Data Rate) 1.0' 방식을 적용해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한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이 제품은 하나의 칩으로 8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을 구현할 수 있어 기존 32Gb 3bit 낸드플래시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며 대용량 메모리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향후 낸드플래시 제품에 'Toggle DDR'을 적용해 대용량·고성능 메모리를 원하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시장 성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한우·육우 사육수 300만마리 육박

3분기 295만마리 … 2분기보다 2.1% 증가

국내산 쇠고기 값이 오르고 소비도 늘면서 한우·육우 사육 마릿수가 300만마리에 육박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한우·육우 사육 마릿수는 295만마리로 2분기보다 6만1000마리(2.1%) 늘었으며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서는 30만9000마리(11.7%)나 급증했다.

품종별로 보면 한우 사육이 3분기에 278만8000마리로 전분기보다 5만4000마리(2.0%)가 증가했으며 육우는 16만1000마리로 2분기에 견줘 7000마리(4.5%)가 늘었다.

통계청은 "원산지표시제도 정착과 소 이력추적제 시행, 정육점형 식당 증가 등에 따라 소비가 늘고 한우 산지가격도 3분기에 500만원대를 유지하면서 한우·육우 사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반면 젖소는 원유 생산조절제도 추진과 저능력 젖소 도태 등에 따라 2분기보다 3천마리(0.7%)가 감소한 42만9000마리로 집계됐다.

돼지 사육 마릿수는 990만1000마리로 전분기보다 17만3000마리(1.8%) 늘었다. 돼지 사육이 늘어난 것도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따른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 때문으로 분석됐다.

닭 사육은 산란계와 육계 모두 2분기에 비해 감소했다. 3분기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이 1천94원으로 작년 동기의 1185원보다 하락하면서 산란계는 전분기보다 2.4%가 감소한 6천9만마리로 집계됐으며 육계는 여름 특수가 끝남에 따라 전분기보다 29.9%가 급감한 7천127만마리에 그쳤다. /연합뉴스

'1인 창조기업' 육성 분야 늘린다

바리스타·소믈리에·IPTV 등 추가 지원

정부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앱) 분야 외에도 1인 창조기업이 사업을 벌이기 적합한 지식서비스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13일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는 직업군을 중심으로 1인 창조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실습터를 내년에 10개 정도 새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인 창조기업은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를 지칭한다.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이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고 지원을 해 왔다.

현재 대학과 기업 등 18개 기관에는 개인 창업자가 전문가 교육을 받고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52곳이 설치돼 있다.

올해 1인 창조기업 육성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적용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업이 중점 지원 대상이었다.

전국 주요 대학에 '앱 창작터'를 만들어 1인 창조기업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돕고 해외 진출도 지원했던 것이다.

내년에는 이 같은 집중 육성 분야가 새로운 지식서비스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바리스타와 소믈리에 등 이른바 '웰빙(참살이)' 직업군 9개와 IPTV와 같은 미디어 분야 등에서 육성 대상을 찾기로 했다.

발굴 분야에서 활동할 1인 창조기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처럼 실습터에서 전문 교육을 받게 된다.

중기청은 내년 1분기에 집중 육성 분야를 확정하고 분야별 지원책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지방 미분양 구입 기업에 세제 혜택"

사택용 취·등록세 70~80% 감면

기업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직원용으로 구입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13일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직원용으로 구입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유·무상의 사택 제공을 목적으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70~80% 감면 ▲재산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취득금액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목적은 지방에 위치한 기업의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복리증진에 있으며, 동시에 지역 경기 회복을 발목 잡는 악성 미분양주택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아시아나-협력업체 '상생간담회' 가져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타운으로 협력업체 임직원 200여 명을 초청해 '상생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수협력사에 인증패를 수여하고 국제·국내선 무료 항공권도 증정했다.

아시아나는 2005년부터 전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평가기준을 만들어 우수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잡한 세무문제 물어보세요"

국세청 '세법해석제도' 운영

국세청은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문제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 및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세법을 해석해주는 '세법해석제도'(서면질의 및 사전답변)와 세무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면질의란 세법해석에 관한 문제를 '서면질의 신청서'에 기재해 물의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 납세자가 쉽게 질의서를 작성하도록 정형화된 서면질의 신청서식을 마련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문제를 법정신고기한기한 전에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서면답변제도'는 신청인의 범위를 '사업자'에서 '비사업자(개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모든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이용토록 하고 있다.

세무문제에 대한 단순한 질문을 할 때는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세무상담'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7월까지 서면질의 2천72건, 사전답변 112건, 전화상담 110만2072건, 인터넷 상담 5만5616건, 방문상담 4648건이 이뤄졌으며 특히 '사전답변제도'의 이용수요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876.15 (+8.11)
▲ 코스닥지수	499.12 (+5.04)
▲ 금리 (국고채 3년)	3.28% (+0.02)
▼ 원·달러 환율	1,120.70원 (-10.8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